| 불자 세상보기 |

화합의 성탄절을 기원하며



법현 스님
열린선원장

'선한 사마리아인' 의 비유는
종교가 해야 하는 모습 보여

세상의 고통에서 알아 나가며
약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탄절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

중동·유럽 등 종교갈등이 한창
화합·상생의 길 열릴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불교가 손 내밀자

"깊은 인연 감사드리고 예수님오신날 의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라는 아주 험한 고갯길을 넘어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몸도 죽을 지경에 이르러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거룩한 종교지도자, 학자, 사마리아인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종교지도자와 학자는 바쁜 일이 있어서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만 그 사람의 고통을 싸매어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만약 돈이 더 필요하면 돈도 주겠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 영생을 묻고자 왔던 사람이 당연히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도 같이 그와 같이 행하라.'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가 법회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법회가 우리를 위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들이 '우리들이고' '사람들이고' '약자들이고' '고통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곳이 없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나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을 초월한 분이 하나님이지만 그 초월을 스스로 부정하고 다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세상을 전혀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고통, 이 세상의 아픔, 이 여리고와 같은 수많은 약자들이 있는 이 세상, 수없이 죽고 죽이는 이 고통의 현실 앞에서 '누가 내 이웃인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성탄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머물러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신이 신으로만 존재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 인간의 아픔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 살필 수 있어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신이 인간이 되었다. 신으로 머물 수도 있지만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비인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종교인이 종교인 역할을 잘하려고 하는 이상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성경에 쓰여 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상의 삶이 성탄절의 신비입니다.

철저한 원수였으나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 앞에서는 원수라고 하는 자기의 한계, 자기의 절대적인 한계마저도 뛰어넘는 것이죠. 성탄적의 신비는 고통 받는 현장 속에서만 반복 재현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성탄의 축하는 일어나지만 성탄의 신비는 구체적으로 고통 받는 삶의 현장 속에서만 반복됩니다.

진짜 성탄절의 찬양이 울려야 할 곳은 교회나 성당이나 그런 화려한 공간이 아니라 저 고통 받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성탄의 신비는 일어나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온 누리에 해당되듯 성탄절의 신비도 종교의 차이를 넘어 고통 받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2년째 열린선원에서 크리스마스 축하 법회를 봉행하는데 올해 12월 10일 법회에서 이정배 목사가 한 설교 결론부를 옮겼다. 중동 지역과 유럽에서는 IS과 트럼프에 의해 촉발된 예루살렘 차지하기, 동남아시아에서는 제국주의 침탈의 피해를 종교간 갈등이라 오해하는 로힝야 사태 등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크리스마스도 돌아오고 몸과 마음이 삶과 날씨의 추위에 오그라드는 요즘 자비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를 신행하는 불자들이 더 넓은 가슴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社 說

사찰환경수호, 범불교적 접근 기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29개 종단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전국사찰수호연합회'를 산하단체로 가입시키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찰환경 침해 사례에 불교계가 한층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국사찰수호연합회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불교문화재 피해와 수행환경 침해 대책을 강구하는 범종단적 기구다. 민간과 형평성 있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강제수용에 의한 운영손실 보상 등을 통해 삼보정재를 수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지난 4월 경기도 광주 수도사를 중심으로 12개 사찰이 뜻을 모아 조직했다.

이후 삼척 안정사 인근 도로개발에 따른 보상 문제, 서울 심택사 수행환경 침해 등 각종 수행환경 문제에 앞장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 건설자본과 각종 권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종단협은 그간 사찰수호연합회가 불교계의 주요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높게 평가하고, 만장일치로 산하단체 가입을 결정했다.

이는 단순히 사찰환경 수호를 넘어 대사회적 인지도나 행정력이 부족한 군소종단을 품어 안는 결정이어서 박수 받을 만하다. 실제 종단협 소속 회장·부회장 종단을 제외하면 환경 침해를 겪는 사찰 대부분은 종단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종단협 산하단체로서 활동할 사찰수호연합회가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 관련법 개정 등 불교계 피해사례를 줄이는 데 방향타가 되길 바란다.

날마다 기부, 날마다 행복의 시작

추운 겨울 경제난으로 불자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졌지만 마음만은 더욱 따뜻해 보인다. 연말을 맞아 불교계 공익법인을 비롯한 기부처에 불자들의 기부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장기기증과 생명나눔 운동을 벌이는 생명나눔실천본부에는 지난해에 비해 20% 가량 증가한 후원금이 답도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진행하는 행복바라미 기부 모연 캠페인과 불교계 대표 공익법인인 아름다운동행의 기부 캠페인에도 예년보다 많은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불자들의 뜨거운 자비실천의 원력을 이어 받아 12월과 1월 어려운 이웃들에게 각종 생필품 전달과 함께 따뜻한 부처님의 감로법을 전할 예정이다.

부처님께서는 여덟 가지 복전 가운데 첫째는 불법승 삼보에 신심을 갖고 공경해야 함을 들며 그 다음은 간병복전이라고 해서 병든 사람을 간호하고 보살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육바라밀에서도 제일 먼저 보시가 등장하듯이 보시행은 불자의 근본 수행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시바라밀이란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도 모르게, 내가 하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따뜻한 소식은 또 다른 따뜻한 인연으로 이어진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인간이 고귀한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 지고 있다. 갑질 논란부터 흉악범죄까지 사회가 발달할수록 사람 냄새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연말 연시를 맞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모두가 평등함을 실천하는 일은 바로 보시, 기부를 실천하는 일일 것이다.



사유의 숲을 거닐며

영원한 오늘

송마나 작가

2017년이 저물어 간다. 아침에 일어나 한 시간을 헐어 사용하면 하루가 금방 사라지듯, 정월이 지나면 한 해도 빠르게 흘러간다. 알차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던 새해 아침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의 끝자락이다. 그 많던 나날들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우리는 새해의 결심을 이루지 못하고 한 해를 흘려보낸 것을 아쉬워하며 지난날을 뒤돌아본다. 그러나 지난해를 후회하며 뒤돌아보는 것은 해마다 되풀이 되곤 한다.

왜 우리는 지난날들을 뒤돌아보는가? 오랜 세월 동안 과거를 뒤돌아보았지만 새롭게 변한 것이 없다면 그만 뒤돌아보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과거라는 어두운 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곳을 기웃거리는 것은 훈습에 젖은 나의 습성이 잡아끌기 때문이다.

성경 창세기에 여호와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롯의 가족들을 피난시키면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돔 성에서 살아왔던 삶에 대한 애착과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오르페우스는 사랑하는 아내 에우리디케가 뱀에 물려 죽자 저승으로 내려가서 음악으로 저승의 신을 감동시켜 아내를 지상으로 데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지상의 빛을 보기까지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지키지 못해 아내를 데려오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지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오르페우스의 치명적인 실수는 욕망이었다. 그는 진리의 밝은 빛으로 에우리디케를 이끌어 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밤의 어두움 속에서 그녀를 갖고 싶은 욕망과 초조함 때문에 그만 뒤돌아봄으로써 그녀는 물론이고 자신마저도 죽음을 맞았다.

어쩌면 저승의 신 하데스는 오르페우스가 아내를 지상으로 이끌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욕망이 잡아끄는 갈애로부터 벗어날 자는 없기 때문이다.

욕망이란 부족함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하려는 마음이다.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어리석음에서 기인한다.

인간은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의 오온(五蘊)이 조건에 따라 연기(緣起)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변하는 나는 무아(無我)이다. 그런데도 거짓 나는 실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욕(五慾)에 집착하여 더 큰 욕망을 갈구한다.

인간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三毒)의 덫에 갇힌 수인과 같다. 세세토록 탐진치(貪瞋癡)의 동굴 속에 갇혀서 그만 바깥세상의 광명한 빛을 망각하고 삼독에 물든 마음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간다. 따라서 삼독의 훈습에 젖은 나는 그것에 이끌려서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게 된다.

우리는 뒤돌아보는 것을 그만 멈춰야 한다. 나라는 실체가 없는데 지난해가 있고 새해가 있을 까닭이 없다. 우리는 영원한 오늘을 살고 있을 뿐이다. <끝>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부산지사 : (051)405-9402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전북지사 : (063)910-8977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